

## 박인환의 ‘불안’과 ‘시론’의 관련성

- 키에르케고르의 ‘불안’을 중심으로

최 라 영\*

### 차 례

- |                        |                        |
|------------------------|------------------------|
| 1. 서론                  | 3. ‘십자로의 거울’과 ‘분열된 정신’ |
| 2. ‘불안한 연대’와 ‘自由에의 境界’ | 4. 결론                  |

### 국문초록

이 글은 박인환 시의 ‘불안’의 특성을 살펴보면서 ‘본질적인 시에 대한 정조와 신념’ 혹은 그의 ‘시론’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그의 ‘불안’은, 간접적 영향관계에 있는 키에르케고르의 ‘불안’과 견주어 조명함으로써 유효한 의미를 얻을 수 있다. 박인환의 시적 사유는 ‘불안’ 속에서 미래를 향한 가능성과 위협을 동시에 인지하고, 그것을 힘겹게 헤쳐나가는 특성을 보여준다. 이것은 키에르케고르의 존재론적 성찰과 유사한 측면을 갖는다. 그러나 키에르케고르의 방식이 초월적 ‘신’을 향한 신념과 관련된 반면에 박인환은 ‘인간(시인)’과 ‘예술(시)’을 향한 신념과 관련되어 있다.

‘불안’과 관련된 시인의 시론의 핵심은 ‘분열된 정신’로서 나타낼 수

\* 한국의국어대학교 대학원 외래교수

있다. ‘분열된 정신’은 ‘시인으로서의 역할’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십자로에 선 거울’의 매개로서 구체화된다. ‘십자로에 선 거울’처럼, 시인은 여기, 저기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과 ‘불안’을 응시하고 공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적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일이기며, 그는 그것이 ‘본질적 시에 대한 정조와 신념’을 지키는 일이라고 믿었다. 즉 박인환은 시인의 역할이 전후(戰後) 공동체적 ‘불안’에 잠재된 우리의 ‘가능성’과 ‘자유’와 ‘미래’를 예지적으로 조명하는 것으로 여겼다. 그는 이것이 선택받은 ‘선지자적(先知者的)’ 시인으로서의 임무로서 여겼으며 그와 같은 선택받은 자의 역할이 그 자신에게 주어졌다고 믿었다. 특기할 것은, ‘인간주의’를 추구한 시인의식이, 그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그의 태생적인 개인적 ‘불안’을 극복해내는 내적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제어 : 불안, 시론, 키에르케고르, 자유, 가능성, 분열된 정신, 십자로에 선 거울, 선지자적 시인, 인간주의.

## 1. 서론

박인환 연구는 시기 면에서 6.25 전쟁과 미국여행을 기점으로 구분된다. 먼저 <후반기> 동인활동과 모더니즘 활동에 초점을 둔 연구는 오세영, 김재홍, 이승훈, 박몽구 등의 논문이 있다.<sup>1)</sup> 시인의 민족문화론과 전쟁체험에 초점을 둔 논의는 박현수, 맹문재, 정영진, 박은영, 조영복, 광명숙, 김종윤 등의 것이 있다.<sup>2)</sup> 그리고 미국체험과 관련하여 그의 시의

1) 오세영, 『후반기 동인의 시사적 위치』, 『박인환』, 이동하 편, 『한국현대시인연구 12』, 문학세계사, 1993, 김재홍, 『모더니즘의 공과』, 이동하 편, 앞의 책, 이승훈, 『1950년대 한국 모더니즘 시의 전개』, 『한국모더니즘 시사』, 문예출판, 2000, 박몽구, 『박인환의 도시시와 1950년대 모더니즘』, 『한중일문학연구』 22, 2007.

전환과 관련한 연구는 한명희, 방민호, 박연희, 정영진, 이기성, 이은주, 오문석, 강계숙, 장석원, 라기주, 최라영 등의 것이 있다.<sup>3)</sup> 최근, 그의 후기 연구들이 집중된 것은 초기시와의 불연속적 특성을 해명하는 작업과 관련이 깊다.

그는 시인 지식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지니고 시대와 세계와 자아에 관하여 당대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고민한 비극적 정서를 깊이있게 형상화하였다. 박인환의 시편들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특징적인 정서는 '불안anxiety'의식으로서 실지로 극도의 '불안'에 처한 화자 혹은 시인의 모습은 시와 산문 전반에서 나타난다. 예를 들면, “懷疑와 不安만이多情스러운 侮蔑의 오늘,” 「살아 있는 것이 있다면」 부분, “皇帝는 不安한 「산테리아」와 함께있었고 모든 物體는 廻轉하였다,” 「舞蹈會」, “옛날 不安

- 
- 2) 박현수, 「전후 비극적 전망의 시적 성취-박인환론」, 『국제어문』 37, 2006, 맹문재, 「폐허의 시대를 품은 지식인 시인」, 『박인환 깊이 읽기』, 서정시학, 2006 정영진, 「박인환 시의 탈식민주의 연구」, 『상허학보』 15, 2005, 조영복, 「근대문학의 '도서관 환상'과 '책'의 숭배 -박인환의 「서적과 풍경」을 중심으로」, 『한국시학연구』 23, 한국시학회, 2008, 광명숙, 「1950년대 모더니즘의 묵시록적 우울-박인환의 시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32, 2009, 김은영, 「박인환 시와 현실인식」, 글벗, 2010, 김종윤, 「전쟁체험과 실존적 불안의식-박인환론」, 『현대문학의 연구』 7, 1996.
- 3) 박인환의 미국체험기록에 주목한 연구로는 한명희, 방민호, 박연희, 정영진, 최라영의 연구를 들 수 있다, 한명희, 「박인환 시 『아메리카 시초』에 대하여」, 『어문학』 85, 2004, 방민호, 「박인환 산문에 나타난 미국」, 『한국현대문학연구』 19, 2006, 박연희, 「박인환의 미국 서부 기행과 아메리카니즘」, 『한국어문학연구』 59, 2012, 정영진, 「박인환 시의 탈식민주의 연구」, 『상허학보』 15, 2005, 이기성, 「제국의 시선을 횡단하는 시 쓰기: 박인환 시의 탈식민주의」, 『현대문학의 연구』 34, 2008, 이은주, 「1950년대 문학비평의 세계주의와 미국적 가치지향의 상관성」, 『상허학보』 18, 2006, 장석원, 「아메리카 여행 후의 회념」, 『박인환 깊이 읽기』, 서정시학, 2006, 오문석, 「박인환의 산문정신」, 『박인환 깊이 읽기』 서정시학, 2006, 강계숙, 「'불안'의 정동, 진리, 시대성: 박인환 시의 새로운 이해」, 『현대문학의 연구』 51, 2013.10, 라기주, 「박인환 시에 나타난 불안의식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46, 2015, 최라영, 「박인환 시에서 '미국여행'과 '기묘한 의식' 연구- '자의식'의 문제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연구』 45, 2015.4.

을 이야기 했었을때 이바다에선, 『太平洋에서』, “그러한 不安의格투…  
…波도처럼 밀려드는 불안한 最後의 會話, 『最後의 會話』, “電信처럼  
가벼웁고 재빠른 不安한 速力은 어데서 오나, 『奇蹟인 現代』, “또한 끝  
없이 들려 오는 不安한 波長” 『밤의 노래』, “不安한 산데리아 아래서 나  
는 웃고 있었다, 『終末』, “最後의 頌歌와 不安한발거름에 맞추어 어데  
로인가 荒僻한 土地의外部로 떠나가는데, 『回想의 긴 溪谷』, “不安의  
旗入발 날리는 땅 위에 떨어졌다……不安한 밤의 戰爭 人類의 傷痕과  
苦惱만이, 『落下』, “잊으려고 할때 두 눈을 가로막는 새로운 不安, 『다  
리 위의 사람』 등이 있다.<sup>4)</sup>

통상적으로, ‘불안’은 불확실한 결과를 지니는 임박한 사건이나 그러한  
것에 관해 통상적으로 염려하고 신경쓰거나 안절부절해하는 감정  
emotion이다.<sup>5)</sup> 정신분석적 맥락에서 ‘불안’은 극도로 안절부절해하고 걱  
정하는 상태에서 특징지워지는 신경상의 혼란상태nervous disorder로서  
강박행동이나 공황발작을 동반하기도 한다.<sup>6)</sup> 프로이트는 ‘불안’에 관하  
여 리비도에서 생겨나는 억압된 본능충동에 속하는 것으로 논의하였으  
나 이후에 ‘불안’이 출생외상과 유사한, 외부와 내부의 위협이나 조짐이  
있을 때 그것을 피하기 위해 ‘자아ego’에서 생겨났다는 논의를 보충하였  
다. 실존주의적 관점에서 ‘불안’은 인간의 유한성과 관련한 근원적 요소

4) 이외에도, “懷疑와 不安만이多情스러운 侮蔑의 오늘을 살아 나간다, 『살아 있는  
것이 있다면』, “옛날 不安을 이야기 했었을때 이바다에선 砲艦이 가라앉고, 『太  
平洋에서』, “電信처럼 가벼웁고 재빠른 不安한 速力은 어데서 오나, 『奇蹟인 現  
代』, “悔恨과 不安에 억매인 우리에게, 『西部戰線에서』, “잊으려고 할때 두 눈을  
가로막는 새로운 不安 화끈거리는 머리, 『다리 위의 사람』 등이 있다(이하 작품  
들은, 엄동섭, 엄철 편, 『박인환 문학전집』(소명출판, 2015)에서 앞선 게재지 원본  
(판본이 여러 개인 경우) 인용, 이하 인용문 방점은 필자의 강조).

5) “a feeling of worry, nervousness, or unease, typically about an imminent event  
or something with an uncertain outcome,” *New Oxford American Dictionary*,  
Third edition, Oxford Univ Press, 2010, p.71.

6) “a nervous disorder characterized by a state of excessive uneasiness and  
apprehension, typically with compulsive behavior or panic attacks”, *ibid.*, p.71.

로서 세계에 처한 '자유의 가능성',<sup>7)</sup> '현기증'<sup>8)</sup> 혹은 '세계 내부적인 것'의 '무의미성'<sup>9)</sup> 등으로서 논의되었다. 최근 논의에서는, 현대사회의 특성과 관련하여 '적응적인 것stranger, social<sup>10)</sup> 혹은 '수행적인 것test and performane'<sup>11)</sup> 등이 논의되기도 하며 '사회적 지위'에 의한 현대인의 '불안'<sup>12)</sup>이 주목되기도 한다.

박인환은 자신의 시론을 논의한 「현대시의 불행한 단면」과 「사르트르의 실존주의」에서 각각, 오든의 「불안의 연대」와 사르트르의 「구토」를 중심으로 인간의 실존과 불안의식을 논의하였다. 그는 그들과 전후(戰後) 세대의식을 공유하였으며 오든 그룹 및 실존주의사조 등의 영향 아래서 우리의 현대시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복합적 특성을 지닌 박인환의 작품에서 두드러지는 정서는 '불안의식'에 관한 것이다. 그의 '불안의식'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프로이트적 정신분석 접근에 의해 이루어져왔다. 즉 김승희는 박인환과 고은의 시에 관하여 프로이트의 '애도'와 '우울증' 논의를 토대로 상실의 시대에 애도, 우울증의 언어로 정신적 공포와 충격에 대응한 전후(戰後) 시의 특성을 논의하였

7) 키에르케고르, 『존재와 시간』, 한길사, 1999, 160쪽.

8) 키에르케고르, 위의 책, 198쪽.

9) 마르틴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 까치, 1998, 255쪽.

10)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련된 불안은 특히 낮은 이들 사이에서 발생하며 어린 아이들 사이에서 흔한 것이다. 그것은 성인기에 접어들면서 사회적 불안 혹은 사회기피증이 될 수 있다. 그것은 사회적 불안social anxiety로서 일컬어진다. 일부 사람들은 특히, 외부집단의 일원들 혹은 다른 집단구성원인 사람들(예를 들면, 인종, 민족, 계층, 젠더, 기타)과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불안감을 경험하기도 한다. Stefan G. Hofmann and Patricia M. DiBartolo, "Introduction: Toward an Understanding of Social Anxiety Disorder" *Social Anxiety* (2010). 19-26쪽.

11) '수행적인 것'과 관련된 시험 불안test anxiety은 특별히 학생들에게 관련된 것이라면 많은 노동자들은 그들의 경력 혹은 업무와 관련하여 동일한 경험을 공유한다, Teigen, Karl Halvor, "Yerkes-Dodson: A Law for all Seasons". *Theory Psychology* (November 1994), vol.4(4), pp.525-547.

12) 알랭 드 보통은 '불안'에 관해서 '사회적 적응'과 관련된 '지위'와 관련하여 현대 사회의 불안의 원인과 치유법을 기술하고 있다, 알랭 드 보통, 『불안』, 은행나무, 2012.

다.<sup>13)</sup> 강계숙은 미국여행 시편들에서 새로운 큰타자 아메리카를 향한 ‘불안’을 라캉의 ‘정동affect’개념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sup>14)</sup> 라기주는 프로이트의 관점에서 현실적 불안, 도덕적 불안, 신경증적 불안의 범주로서 작품들에서 세계화의 불화로 인한 상처를 구명하였다.<sup>15)</sup>

당대 사조 및 시대상황과 관련된 박인환의 ‘불안의식’은 복합적 특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의 시론적 지향과도 결합되어 있다. 즉 프로이트와 라캉 계열의 성·자아발달 단계의 단일한 국면에서 그의 불만의식을 조명해내기에는 미흡한 조건들이 있다. 그의 ‘불안의식’은 세계대전과 6.25 전쟁을 겪으며 존재 자체의 위협을 절감하면서도 세계주의를 추구하면서 고유한 문학, 사상적 지향을 추구하였던 그의 시적 특성을 고려하여 조명될 필요가 있다. 특히 그의 작품들은 그가 ‘불안’에 직면하고 그것을 다스리는 과정에서 박인환의 고유한 ‘시론적 지향’과 관련을 맺으며 창작되었다. 즉 그의 불만의식은 창작상으로 지향된 그의 시론과 관련지어 규명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의 계기로서 작용한 서구문인들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야 한다.<sup>16)</sup>

그의 ‘불안의식’과 ‘시론’ 형성의 상관성에 초점을 두고 본다면, 그가 시론 논의에서 주요하게 다룬 오든과 사르트르의 불만의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박인환은 시론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주로 인용의 방식으로

- 
- 13) 김승희, 『전후 시의 언술 특성: 애도의 언어와 우울증의 언어-박인환·고은의 초기시를 중심으로』, 『한국시학연구』 23, 2012.7, 125-149쪽.  
 14) 강계숙, 『‘불안’의 정동, 진리, 시대성: 박인환 시의 새로운 이해』, 『현대문학의 연구』 51, 2013.10, 454-463쪽.  
 15) 라기주, 『박인환 시에 나타난 불만의식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46, 2015, 81-110쪽.  
 16) 박인환은 사르트르의 『구도』의 일부를 발췌형식으로 소개하면서 자신이 파악한 주제를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실존이란 무동기, 불합리, 추괴醜怪이며 인간은 이 실존의 일원으로서 불안, 공포의 심연에 있다는 것이다. 이 심연에서 구원을 신에게 찾는 것이 키르케고르이나, 무신론자 사르트르는 행동에 의한 자유를 찾지 못하고서는 구원은 없다고 한다.” 박인환, 『사르트르의 실존주의』, 『신천지』, 1948.10.

자신의 뜻과 일치하는 오든그룹의 특성과 실존주의 사조 등을 진술하였다. 그런데 박인환이 줄거리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던 오든의 『불안의 연대』는 키에르케고르의 불안사상과의 직접적 영향을 보여준다.<sup>17)</sup> 단적으로, 오든은 그러한 영향관계를 자신의 시편에서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sup>18)</sup> 한편, 박인환이 사르트르의 『구토』를 중심으로 논의한 실존주의 의식도 그 연원에 관해서는 키에르케고르의 불안의식의 고찰을 필요로 한다.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지식인들은 체계에 견주어 개인의 자유를 요구하였으며 체계와 철학의 환상을 비판한 실존주의 사상이 주류를 이루었다. 키에르케고르는 헤겔의 체계중심주의를 비판하고 철학에 인간의 '불안'을 처음 도입하였는데 '불안'에 관한 그의 논의는 하이데거, 사르트르 등의 실존주의자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상가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전후 지식인들의 허무의식은 이론상의 진리와 정신적 체험에 의해 힘겹게 얻은 진리 사이에 큰 간극을 체험하게 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경향 하에서 인간의 불안을 체계에 앞선 근원적 요소로서 논의한 실존주의적 불안사상이 각광받았다. 특히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이 변증법의 필연적 움직임에 의해 결정지어진 형이상학적 존재가 아니라 구체적, 우발적 존재임을 강조하였다. 절대진리는 아무리 애써도 닿을 수 없음이 인간의 조건이며 따라서 인간은 자신의 선택이 옳은지 확실히 알지 못하면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sup>19)</sup>

17) “오든의 40년대에 발표한 장시들과 그 후의 거의 모든 시들은 키에르케고르의 사상을 반영하고 있다. 1941년에 발표된 『새해편지』의 각 부분은 키에르케고르의 실존의 세 가지 단계와 긴밀하게 내적 연관성을 맺고 있다. 그리하여 결국 예술(시)이 우리 인간에게 이상적인 기독교의 질서와 조화의 형식을 조명한다는 것을 오든은 이 작품을 통해 실례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키에르케고르의 예술관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기도 하다.” 허현숙, 『오든』, 54쪽.

18) 오든의 자신의 후기시편, *A Thanksgiving*에서 명시적으로 키에르케고르와의 영향관계를 밝히고 있다(“Why was I sure they were wrong?/ Wild Kierkegaard, Williams and Lewis/ guided me back to belief”(A Thanksgiving 부분).

‘불안’은 개인이 세상과 맺는 관계, 즉 ‘자유’에 의해 결정되는 관계를 드러내는 상태이다. 불안을 야기하는 가능성은 세상 속에 처한 인간의 상황(행위, 사건, 인간 관계 등)과 연관된다.<sup>20)</sup> 즉 불안은 대상이 분명하지 않고 그것은 실상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또한 ‘불안’은 추상적인 자유의지와는 관계가 없으며 구체적이고 유한한 자유와 관련된다.<sup>21)</sup> 인간이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하며 정신과 지성이 없다면 불안 또한 모를 것이다. 불안으로부터의 해방은 자기 자신으로 부터의 해방과 마찬가지로 불가능하다. 키에르케고르의 논의가 철학, 심리학에서 유효한 부분은 ‘불안’에 관해 세상과 가능성 즉 자유에 직면한 인간의 근본적 조건으로서 개념화한 사실에 있다.<sup>22)</sup>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면서도 구원의 가능성이

19) 쇠렌 키르케고르, 임규정 역, 『불안의 개념』, 한길사, 1999, pp.159-182, 샤를 르 블랑, 이창실 역, 『키에르케고르』, 동문선, 2004, 146-149쪽.

20) 샤를 르 블랑, 이창실 역, 『키에르케고르』, 동문선, 2004, 92-97쪽.

21) 키에르케고르가 논의하는 불안은, ‘공포’와 구별짓지 않은 프로이트와는 달리, 분명한 대상이 없다는 점에서 ‘공포’와는 구별된다. 또한 키에르케고르는 객관적 불안과 주관적 불안을 구분짓는데, 전자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것이 라면 후자는 자신의 가능성에 뛰어들어 행위와 죄를 통해 자유의 현기증을 체험하는 것이다.

22) 하이데거가 논의한 무(無)에 직면해 느끼는 ‘현존재’의 ‘불안’은 ‘가능’과 ‘자유’의 관련성에 관한 키에르케고르의 논의와 관련이 깊다. 하이데거는 ‘불안’에 관해 어떤 상황에 처해서 ‘아무것도 아님과 아무데에도 없음’의 무의미성으로서 정의 하였다. 그것은 세계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내부적 존재자가 그 자체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 이어서 그는 ‘불안’이 현존재 안에서 가장 고유한 존재가능으로 향한 존재를 드러내주며 자기자신을 선택하고 장악하는 자유를 드러내준다고 논의한다. 하이데거의 ‘불안’은 ‘무’를 체험하고 그것을 ‘가능’으로서 인식하는 과정상의 심리에 관하여 논의하고 있다면 키에르케고르는 ‘자유’ 앞에서의 ‘불안’ 즉 인간의 근원적 요소로서 ‘불안’의 양가적 속성을 논의한다고 볼 수 있다. 마르틴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 까치, 1998, 254-257쪽.

사르트르는 하이데거의 ‘무의미성’으로서의 ‘불안’보다도 키에르케고르가 논의한 ‘자유’ 앞에서의 불안을 긍정하고 그것을 구체적 사례로써 논의한다. 그에게 ‘불안’은 ‘자유’ 앞에서의 ‘현기증’과 등가의 의미를 지닌다. 이를테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징집된 군인은 죽음의 두려움을 느낄 수 있지만 일반 사람들은 ‘두려

있으므로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에 대해 의문을 품고 그 답을 구하는 존재이다. 이것은 “인간이 원래 관계했던 절대존재에의 갈망이며 이러한 갈망에 의해 인간은 생존할 수 있다.”<sup>23)</sup>

박인환은 오든과 사르트르의 작품들을 경유하여 키에르케고르의 불안 사상을 간접적으로 접하였을 가능성이 크며 그가 형상화하는 불안의식은 그의 시론과 결합적인 특성을 지닌다. 그럼에도 실지로 박인환의 작품에서 형상화되고 있는 ‘불안의식’은 키에르케고르의 존재론적 불안과 관련하여 조명함으로써 유효하게 구체화될 수 있다. 특히, ‘불안’ 속에서 미래를 향한 가능성과 위험을 동시에 인지하고 그것을 힘겹게 헤쳐나가는 상상과 사유는 그의 시의 특징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그럼에도 그가 불안을 극복해가는 과정은 키에르케고르의 것과 구별된다. 키에르케고르는 그 과정이 초월적 신을 향한 신념과 관련한 것이라면 박인환은 ‘인간(시인)’과 ‘예술(시)’을 향한 신념과 관련되어 있다. 단적으로, 그는 “황폐와 광신과 절망과 불신의 현실이 가로놓인 오늘의 세계”를 강조하면서 자신이 속한 시대를 살아가는 지식인들에게는 “그 사상과 의식에는 정확한 하나의 통일된 불안의 계통”이 세워져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그(시인)의 사회적 책임은 시를 쓰는 데 있고 인간에 성실하

---

움’을 느끼는 것에 두려움을 느낀다. 그는 자기자신 앞에서 불안을 느끼는 것이다. 사르트르역시 불안 속에서의 ‘가능’과 ‘자유’의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즉 불안 속에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이 자유는 동기와 행위 사이에 숨어드는 이 ‘아무 것도 아닌 것’(없는 것)(rien)의 존재에 의해 특징지워진다. 내가 자유롭기 ‘때문에’ 나의 행위는 여러 동기에 의한 결정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효한 것인 여러 동기의 구조가 나의 자유의 조건이다, 사르트르, 『존재와 무』 정소성 역, 동서문화사, 2009, 84-85쪽, 91쪽.

샤를 르 블랑은 하이데거의 ‘불안’을 ‘무’에 직면해 느끼는 ‘현존재의 불안정으로서, 그리고 사르트르의 ‘불안’을, 우리의 행위들에 대한 ‘책임의식’으로서 규정짓는다. 하이데거와 사르트르의 ‘불안’ 논의의 근원은 키에르케고르의 논의, 즉 ‘불안’을 인간이 세상 속에 처한 상황으로서 파악하고 인간의 근원적 요소로서 ‘불안’과 ‘가능’과 ‘자유’의 관련성을 논의한 것이다, 샤를 르 블랑, 이창실 역, 『키에르케고르』, 동문선, 2004, 92쪽.

23) 허현숙, 『오든』, 건국대출판부, 1995, 54쪽.

려면 이 세계풍조를 그대로 묘사하여야만 한다”고 하였다. 이어 그는 “현대시의 발전을 위하여 한국의 일각에서 손가락을 피로 적시며 시의 소재와 그 경험의 세계를 발굴하여야”한다고 주장하였다.<sup>24)</sup>

박인환은 6.25 전쟁기라는 상황에서도 당대의 세계적 사조를 익히면서 ‘불안’과 관련한 창작적 시론을 전개하였다.<sup>25)</sup> 그는 주로, 자신의 시론에 관해 간접적 인용 혹은 발췌 형식으로 진술하였다. 그의 시론의 특성을 단적으로 암시하는 것으로는 시론적 글의 서두에 인용한 데이 루이스의 다음 구절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즉 “시인은 시인인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 같은 것을 먹고 동일한 무기로 傷害를 입는 인간인 것이다. 大氣에 희망이 있으며 그것을 듣고 고통이 생기면 그것을 느낀다. 인간으로서 두 개의 세계에 처함으로서 그는 시인으로서 두 개의 불(火) 사이에 서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시인은 민감한 도구이지 지도자는 아니다. 관념이라는 것은 그것이 실제적인 정신에 있어서 상식으로 되지 않는 한 시인의 재료로는 되지 않는다. 십자로에 있는 거울(鏡)처럼 시인은 서서 교통을, 위험을, 제군들이 온 길과 제군들이 갈 길-즉 제군들 자신의 분열된 정신-을 나타내는 것이다.”<sup>26)</sup>

위의 글에서 시인의 불안의식은 ‘분열된 정신’으로서 형상화되어 있다. 시인의 의미하는 ‘분열된 정신’은 개인의 ‘불안’과 유사하면서도 그것을 넘어서 있다. 그것은 시인의 역할을 나타내는 ‘십자로에 선 거울’에서 사람들을 비추어내는 ‘현기증’의 형상이기 때문이다. 즉 ‘십자로에 선 거울’은 시인이 속한 세계의 이곳과 저곳, 여기와 저기, 그리고 세계와 그 너머를 비추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그러한 ‘대기’에서 감추어지거나 소외된 당대인들의 불안과 고통을 비추고 있다. 그것은 ‘현기증’을 일으키는 ‘불안’이자 ‘가능성’ 혹은 ‘분열된 정신’의 형상으로 나타난다. 그는 이러한 정신의

24) 박인환, 『현대시의 불행한 단면』 부분.

25) 이것은 키에르케고르가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개인적 체험을 바탕으로 철학적, 심리학적으로 ‘불안’을 천착한 것과 유사한 방식이다.

26) 박인환, 『현대시의 불행한 단면』 부분.

형상화가 '시인으로서의 임무'이며 '본질적 시에 대한 정조와 신념'이라고 생각하였다. 즉 그에게 '시'란 자신의 '불안'을 직면하는 방식이면서 동시에 자신이 속한 세계의 사람들의 '불안'과 '고통'에 공감하는 것이었다.

단적으로, 『검은江』에서는 자신과 같은 지식인과, 전쟁터로 향하는 농부의 아들의 상황을 대비하면서 전운이 감도는 시대적 불안을 조명하였다. 『植民港의 밤』에서는 은행지배인과 그가 동반한 꽃파는 소녀를 향한 고통스런 시선과 함께, 식민상황의 모순이 지속되는 사회적 불안을 형상화하였다. 나아가, 『南風』, 『인도네시아 人民에게 주는 詩』, 『仁川港』 등에서, 그는 민족과 인류의 미래를 향한 시선을 우리와 같은 탈식민 국가와 도시, 즉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홍콩 등의 상황에까지 두고 있다. 그의 시편들에서 '불안'은 거의 강박적으로 따라다니는데, 그것은 "어데서나 나와 함께 사는" "不幸한 神"(『不幸한 神』), 혹은 '限없이 우리들을 괴롭히는 問題되는 것'(『問題되는 것』), "피하면 피할수록 더욱 接近하는 것"(『壁』) 등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이 글은 박인환의 시에서 '불안'의 특성을 살펴보면서 '본질적인 시에 대한 정조와 신념' 혹은 그의 시론적 지향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것은 그의 평생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닌 '불안'과 그것에 직면하고 그것을 극복하려 한 시인의 존재론적 형상을 엿보는 일이 될 것이다.<sup>27)28)</sup>

## 2. '불안한 연대'와 '自由에의 境界'

나는 10여 년 동안 시를 써왔다. 이 세대는 세계시가 그러한 것과 같

27) 서론의 연구사에서 특징적으로 드러난 바와 같이, 이 글은 그의 시편들의 뚜렷한 변화양상에 따라서 6.25전쟁과 미국체험을 전후로 하여 단계적으로 논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28) 학회의 발표에서 이 글을 자세히 읽어주시고 제목을 수정하도록 도움을 주신 김경복 선생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이 참으로 기묘한 불안한 연대였다. 그것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성장해온 그 어떠한 시대보다 혼란하였으며 정신적으로 고통을 준 것이었다.

시를 쓴다는 것은 내가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것이었다. 나는 지도자도 아니며 정치가도 아닌 것을 잘 알면서 사회와 싸웠다./ 신조치고 동요되지 아니한 것이 없고 공인되어 온 교리치고 마침내 결함을 노정하지 아니한 것이 없고 또 용인된 전통치고 위태에 임하지 아니한 것이 없는 것처럼 나의 시의 모든 작용도 이 10년 동안에 여러 가지로 변하였으나 본질적인 시에 대한 정조와 신념만을 무척 지켜온 것으로 생각한다. 『선시집』 후기 부분.<sup>29)</sup>

박인환은 『선시집』 후기에서 살아온 시대를 ‘불안한 연대’로 지칭하면서 시대의 혼란상과 정신적 고통을 토로하였다.<sup>30)</sup> 그는 ‘시를 쓴다는 것’이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것’이라고 밝힌다. 그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고향을 내려다본 공황 속에서(『故郷에 가서』), 친우의 죽음 소식을 들을 때에(『舞蹈會』), 그리고 결혼식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세사람의 家族』) 그러한 순간을 놓치지 않고 ‘시’로 담아내었다. 또한 그는 전쟁의 포화가 쏟아지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에도 “시를 읽”고 있다(『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

10년 동안 지켜온 “본질적인 시에 대한 정조와 신념”의 전제는 그가 어떠한 순간에도 시를 쓰고 시에 관해서 생각하였다는 것이다. 『세사람의 家族』에서 시인은 결혼식을 마치고 신부와 도심의 거리를 걷고 있는데, 결혼식이 상기시킬 법한 행복의 감정은 읽어낼 수 없다. 다만, ‘종말

29) 이하 박인환 산문 인용문은, 문승묵 편, 『박인환 전집』, 예음, 2006, 방점은 필자의 강조.

30) “우리들은 대전의 음영 아래서 자라났고 우리들에게는 전전戰前의 번영과 안정된 구라파의 기억은 없다. 그 무렵의 경기 좋은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역사 교과서의 자료일 뿐이다. 지금 우리에게 아무 안정도 없다.” 『현대시의 불행한 단면』 부분.

의식'이 '적막의 황무지'에 부는 '폭풍우'의 표현으로서 나타난다("苦痛과 嘔吐가 凍結된 밤의 쇼-위인드/ 그 곁에는 絶望과 飢餓의 行列이/ 밤을 새우고/ 來日이 오며는/ 이 寂寞의 荒蕪地에 暴風雪이 분다"). 그런데 그는 그 와중에 "氷花처럼 곱게 잠드른 지나간 歲月을 위해 詩를 써보"는 것이다("아 蒼白한 世上과 나의 生涯에/ 終末이 오기 前에/ 나는 孤獨한 疲勞에서/ 氷花처럼 곱게 잠드른 지나간 歲月을 위해 詩를 써본다").

즉 '시를 쓰는 일'은 그가 '종말의식'을 절감하는 "불안한 연대"에 스스로의 '불안'을 응시하면서 또한 세계의 '가능성'을 응시하는 주요한 방식이었다.

靜謐한 가운데  
燐光처럼 비치는 무수한 눈  
暗黑의 地平은  
自由에의 境界를 만든다.

사랑은 주검은 斜面으로 달리고  
脆弱하게 組織된  
나의 內面은  
지금은 孤獨한 甌瓶

밤은 이 어두운 밤은  
안테나로 形成되었다  
구름과 感情의 經緯度에서  
나는 永遠히 約束될  
未來에의 絶望에 關하여 이야기도 하였다.

또한 끝없이 들려 오는 不安한 波長  
내가 아는 單語와  
나의 平凡한 意識은  
밝아올 날의 領域으로  
危殆롭게 隣接되어 간다.

가느다란 노래도 없이  
길목에선 갈대가 죽고  
욱어진 異神의 날개들이  
깊은 밤  
저 飢餓의 별을 向하여 作別한다.

鼓膜을 깨뜨릴 듯이  
달려오는 電波  
그것이 가끔 教會의 鍾소리에 합쳐  
線을 그리며  
내 가슴의 隕石에 가랏아버린다. 「밤의 노래」 전문

모든 것들이 불투명한 무지 속에 혹은 위험스러운 사건들로서 존재할 때, 하나의 선택 혹은 가능성은 개인에게 예측불가능함을 떠안는 ‘자유’ 이자 극도의 ‘불안’이 된다. 시인은 그 불안에 휩싸여 있으면서 그것을 응시하려고 한다. 그것은 자신의 내면을 ‘암흑’ 속에서 투영해내는 상상 속에서이며 ‘경위도’, ‘파장波長’ 등의 지표물로써 구체화된다. 시인이 그려내는 ‘구름과 감정의 경위도’는 ‘불안’을 응시하는 시인 내면의 지형도인 것이다. 시인은 ‘자아’의 ‘경계’ 혹은 존재 그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전운이 감도는 ‘암흑의 지평’을 바라보고 있다. 그것을 헤쳐나가는 상상과 사유는 ‘불안의 파장’의 궤도로서 형상화된다. ‘암흑의 세계’는 또한 예측 불가능함이기도 한데 시인은 그러한 ‘암흑’ 속에서 극도의 불안을 느끼면서도 “밝아올 날의 領域으로 危殆롭게 隣接”하고자 한다. 전운이 감도는 시공간에서 시인이 절감하는 것은 창세기 아담의 ‘불안’과 유사한 특성을 지닌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지시에 응하는 무지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인 것이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는 자유를 누리는 동시에 그러한 선택으로 해서 낙원으로로부터 추방되는 불운을 떠안게 되었다.

세계대전의 전운 속에서 6.25 전쟁을 목도하는, 한 개인이 씩어지는

‘불안’의 정도는 고막을 터질’듯이 커지는 무형의 ‘파장’으로 나타난다. ‘고막이 터질’듯한 ‘파장’의 움직임은 자신이 처한 현실을 대면하는 시인의 불안과 고뇌와 모색을 나타내고 있다. 즉 그는 ‘암흑의 지평’에 자신을 내어주지만 필연적 조건과 상황에 떠밀려가지 않으려 한다. 시인은 ‘암흑의 세계’를 응시하는 가운데 위협적으로 커지는 ‘불안의 파장’에 떨면서도 동시에 바로 그 ‘암흑의 지평’만큼이나 가능할 수 있는 ‘자유의 경계’를 바라보고자 한다. 그것은, ‘무수한 인상과 전환하는 연대의 그늘’에서 커지는 ‘불안’과 ‘고통’의 궤도를 따라 일어나는 ‘불안의 격투’의 종류인 것이다(“無수한 인상과 轉換하는 年代의 그늘에서 아 永원히 흘러 가는 것 …… 그러한 불안의 格투,” 『最後의 會話』부분).

시인의 ‘불안의 파장’은 ‘현기증’을 일으키는 ‘자유’를 동반한다는 측면에서 키에르케고르가 논의한 미지의 ‘가능성’ 앞에서 느끼는 불편한 감정 즉 불안과의 관계를 창작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sup>31)</sup> 그런데 박인환의 경우는 초월적인 것을 향한 간절함을 보여주면서도 그것에 의지하는

31) 철학에서 논리학에 속하는 ‘가능성’은 아리스토텔레스 이래로 비모순이라는 원칙의 지배를 받으며 필연과 우연으로 분류된다. 사물들이 필연적이라는 말은 그것이 현재 있는 그대로라는 것을 뜻한다. 한편 인간들의 경우는 구체적이고 생생한 경험을 통해 행하고 완수할 수 있는 것을 뜻한다. 키에르케고르가 의미하는 ‘가능성’은 사물들의 존재 혹은 상태의 도래에 대한 판단을 뜻하는 것이 아니며 그것은 구체적, 현실적인 인간 존재의 특징을 뜻한다. 인간의 삶은 존재이며 세상과 타인들과의 관계이다. 그것은 생존에 대한 걱정이며 기대와 계획이다. 키에르케고르는 무언가를 행하거나 혹은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래부터 갖고 있는 것, 이것이 존재하는 것이며 존재는 가능성이라고 규정한다. 즉 행동하거나 따를 수 있는 가능성은 조건지어진 것이 아니고 물질적-논리적 조건에 좌우되지도 않는다. 가능성은 존재하는 것의 형이상학적 조건이다. 이같은 미지의 가능성 앞에서 느끼는 불편한 감정이 ‘불안’이다. 각각의 결정에는 한 개인 전체가 걸려 있는데, 이것이 바로 가능성인 존재가 지니는 엄청난 힘의 비밀이다. 존재가 가능성이라면 개인의 존재는 바로 불안이다. 개인성이야말로 존재에 직면한 인간의 본질적인 양상이라면 그 주된 측면은 ‘불안’이다. 키에르케고르는 불안이 세상과 가능성 혹은 가능성의 결과적 자유에 직면하는 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조건이라고 본다, 샤를 르 블랑, 이창실 역, 『키에르케고르』, 동문선, 2004, 52-56쪽.

믿음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그보다, 그는 인류의 문명과 미래의 가능성 그리고 인간이 추구해온 가치에 더 가까이 서 있다. 그것은 위 시편에서는 ‘불안의 파장’이 거쳐가는 표지물의 형상으로서 구체화된다. 즉 ‘구름과 감정의 경위도’에서 ‘불안의 파장’은 ‘고막을 터질’ 듯이 ‘선을 그리며’ 나아가고 있다. 그것은 ‘밤하늘을 수놓는 안테나들,’ ‘기아의 별,’ ‘육어진 이신의 날개들,’ 그리고 ‘교회의 종소리’ 등을 ‘선을 그리며’ 거쳐간다. 그것은 각각 ‘인류의 문명,’ ‘지난한 현실의 이곳저곳,’ 그리고 ‘초월적 세계’ 등의 의미망을 형성하는 표지물이다. 그런데 시인의 ‘불안의 파장’은 어느 한 곳을 정착하지 못하고 그것들 사이를 떠돌다가 결국 ‘내 가슴의 운석’으로서 ‘가라앉는다,’ 즉 ‘불안의 파장’의 진원 곧 ‘시인’의 내면에 가라앉는 ‘운석(隕石)’으로서 결정화되고 있다.

키에르케고르의 ‘불안’과 ‘자유’는 구체적이고 유한한 특성을 지니며 그것들은 박인환의 불안의 파장이 나아가는 ‘자유’ 혹은 ‘의지’와는 다른 특성을 지닌다.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의 유한성을 전제로 하여 초월적 존재를 향한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한편, 박인환은 ‘불안’을 응시하고 그것을 인간적 가치로써 극복하려는 방식을 지향하고 있다. 그것은 그의 시편들에서 ‘신’을 향한 지향과 동시에 신의 ‘무심함’을 향한 인간적 감정을 상반되게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박인환의 ‘불안’의 ‘파장’은 ‘인간’ 혹은 ‘예술(시),’ 그리고 ‘인류의 문명과 미래’라는 인간적 표지들 사이를 떠다니고 있다. 그것들은 그가 ‘불안’과 ‘자유’의 양가적 측면을 응시하고 삶을 지탱해나가는 이유가 된다. 이같은 인간적 방식은 이후에 그가 철저한 페시미스트가 되어버린 일과 관련이 깊다. 한편, 신을 향한 신념을 지녔던 키에르케고르는 당면한 불안과 절망의 문제로부터 초월적 절대성 속에 안착할 수 있었다. 박인환은 ‘암흑의 지평’ 그 너머에 있는 ‘미래’의 희미한 꿈과 ‘인간적 가치’에 대한 믿음을 놓치지 않으려 하였다. 그는 전쟁과 학살이 자행된 시대에도 “시인으로서의 임무”에 신성한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그에게 ‘시를 쓰는 일’은 어떠한 순간에도 행해

져야 하는 신앙과 같은 것이었다.

### 3. '십자로의 거울'과 '분열된 정신'

시인은 시인인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 같은 것을 먹고 동일한 무기로 傷害를 입는 인간인 것이다. 大氣에 희망이 있으면 그것을 듣고 고통이 생기면 그것을 느낀다. 인간으로서 두 개의 세계에 처함으로서 그는 시인으로서 두 개의 불(火) 사이에 서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시인은 민감한 도구이지 지도자는 아니다. 관념이라는 것은 그것이 실제적인 정신에 있어서 상식으로 되지 않는 한 시인의 재료로는 되지 않는다. 십자로에 있는 거울(鏡)처럼 시인은 서서 고통을, 위험을, 제군들이 온 길과 제군들이 갈 길-즉 제군들 자신의 분열된 정신-을 나타내는 것이다, 『현대시의 불행한 단면』 부분

그가 '불안한 연대'에서 지켜왔다는 '본질적인 시에 대한 정조와 신념'은 어떻게 구체화되는가. 이것의 실마리로서 『현대시의 불행한 단면』의 위 구절을 참고할 수 있다.<sup>32)</sup>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똑같이 상해를 입을 수 있는 '인간'으로서 시인은 '대기에 희망이 있으면 그것을 듣고' '고통이 생기면 그것을 느낀다.' 이때 '대기'란 시인이 속한 '세계'를 의미하며 '인간으로서 두 개의 세계에 처'한 시인은 '시인으로서 두 개의 불 사이에 서 있는' 것이다. 시인은 '민감한 도구이지 지도자는 아니'며 시인의 재료는 '관념'이 아니다. 박인환은 데이 루이스의 이 구절을 자신의

32) 『현대시의 불행한 단면』과 『사르트르의 실존주의』 등에서 보듯이, 그는 자신의 고유한 시론을 직접 논하기보다는 주로, 자신의 뜻과 일치하는 견해들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암묵적으로 나타내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오든 그룹의 일원, 데이 루이스가 이 구절을 논의한 맥락은 시인이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에 그 중심을 두고 작품을 통해 사회 속의 인간의 상태를 드러내어 그 병적 상태를 치유해야 한다는 의도와 관련을 지닌 것이다. 이러한 지향은 오든을 비롯한 오든그룹의 공통된 것이기도 하였다, 허현숙, 『오든』, 건국대학교 출판부, 1995, 36쪽.

시론을 논의하는 서두글로서 삼고 있으며 ‘십자로’의 ‘분열된 정신’과 관련한 어구는 그의 작품의 서두에서 나타나기도 하며 무엇보다도 그의 작품의 내재적 구도를 이루고 있다.

그는 세계와 그에 속한 사람들이 체험하는 ‘대기’를 공감적으로 그려내고자 하며 ‘지도자’가 아닌 ‘민감한 도구’로서의 ‘시인’의 입지를 추구하고 있다.

신이란 이름으로서  
우리는 最終의路程을 찾아보았다.

어느날 驛前에서 들려오는  
軍隊의 습음을 귀에 받으며  
우리는 죽으러 가는 者와는  
反對 方向의 列車에 앉아  
情慾처럼 疲弊한 小說에 눈을 흘겼다.

지금 바람처럼 交叉하는 地帶  
거기엔 一切의 不純한 慾望이 反射되고  
農夫의 아들은 表情도 없이  
爆音과 硝煙이 가득찬  
生과 死의 境地에 떠난다.

달은 精寔보다도 더욱 처량하다  
멀리 우리의 視線을 集中한  
人間의 피로 이루은  
自由의 城砦  
그것은 우리와 같이 退却하는 자와는 關聯이 없었다.

신이란 이름으로서  
우리는 저 달 속에  
暗澹한 검은 江이 흐르는 것을 보았다. 「검은江」 전문

饗宴의 밤

領事婦人에게 아시아의 前說을 말했다.

自動車도 人力車도 停車되었으므로  
神聖한 땅 위를 나는 걸었다.

銀行支配人이 同伴한 꽃 파는 少女

그는 일찌기 自己의 몸 값보다  
꽃 값이 비쌌다는 것을 안다.

陸戰隊의 演奏會를 듣고 오던 住民은  
敵愾心으로 植民地의 哀歌를 불렀다.

三角洲의 달빛

白晝의 流血을 밟으며 찬 海風이 나의 얼굴을 적신다.

「植民港의 밤」 전문

나는 10여 년 동안 시를 써왔다. 이 세대는 세계사가 그러한 것과 같이 참으로 기묘한 불안한 연대였다. 그것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성장해온 그 어떠한 시대보다 혼란하였으며 정신적으로 고통을 준 것이었다. / 시를 쓴다는 것은 내가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것이었다. 나는 지도자도 아니며 정치가도 아닌 것을 잘 알면서 사회와 싸웠다. / 신조치고 동요되지 아니한 것이 없고 공인되어 온 교리치고 마침내 결함을 노정하지 아니한 것이 없고 또 용인된 전통치고 위태에 임하지 아니한 것이 없는 것처럼 나의 시의 모든 작용도 이 10년 동안에 여러 가지로 변하였으나 본질적인 시에 대한 정조와 신념만을 무척 지켜온 것으로 생각한다…… 여하튼 나는 우리가 걸어온 기로가 갈 길 그리고 우리들 자신의 분열한 정신을 우리가 사는 현실사회에서 어떻게 나타내 보이며 순수한 본능과 체험을 통해 불안과 희망의 두 세계에서 어떠한 것을 써야 하는 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여기에 실은 작품들을 발표했었다, 『선시집』 후기

첫 번째 시에서 시인은 반대방향의 열차에 있는 군인들을 바라본다. 그는 그들이 자신과는 반대방향인 전쟁터로 향하는 젊은이이며 그들이 '농부의 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그들의 과거와 미래 혹은 '죽으러 가는 자'로서의 운명을 간파하고 있다. 한편으로, 그는 '정욕처럼 피폐한 소설에 눈을 흘기'는 특혜받은 지식인으로서의 자괴감을 보여준다. 그는 상행선과 하행선이 마주하는 '십자로'의 '대기'속에서 '삶'과 '죽음' 혹은 '두 개의 불'을 향하고 있는 인간의 '불안'과 '가능성' 혹은 '불운'을 형상화하고 있다. 그는 그 자신이 '지도자'가 아닌 '시인'임을 절감하는데 그것은 그가 모순된 두 세계에 속한 이들의 불안함과 불운한 미래를 그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가 '바람처럼 교차하는'지점에서 스스로에게 자괴감을 느끼며 '농부의 아들들'에게 연민을 느끼는 장면은 인간적인 진정성을 담고 있다.

시인은 '달은 정막보다도 더욱 처량하다,' 그 달은 '우리와 같이 퇴각하는 자와는 관련이 없다'고 되뇌인다. 현 상황은 '신'에게서도 구제될 수 없는데 그것은 '저 달 속에 암담한 검은 강이 흐르'는 것으로 구체화된다. 즉 이 시의 장면은 부조리하고 불평등한 상황에 직면하여 '죽음'의 세계를 향해 불안과 가능성으로써 나아가는 이들에 대한 시인의 연민, 그리고 '폭음과 초연이 가득 찬' 세상과는 무관한 신의 형상에 대한 시인의 원망을 보여준다. 이 복합적 장면이 시인이 의미한 '대기의 불' 사이에 있는 '분열된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대립적이고 모순된 '두 개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십자로에 선 거울'의 지점에서, 시인이 자신들의 불안과 가능성을 떠안고 미래의 자유 혹은 불운을 향하는 인간들의 운명을 비추어내는 복합적 형상물이라고 할 수 있다.<sup>33)</sup>

33) 박인환은 시를 평가하는 것에 있어서도 현대의 복잡한 현실과 과거와 미래를 향한 시선을 열어두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일례로 그는 김규동의 시 비평에서 "현대시는 왜 난해하냐 하면 그것은 현대의 제상이 복잡하고 난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자기의 환상과 현실을…… 신념과 망각을…… 과거와 미래를…… 그리려고 노력했다(『1954년의 한국시』 부분)"고 진술한다.

두 번째 시에는 '향연의 밤'에 시인의 눈에 비친 두 여인이 등장한다. 한 사람은 영사관 부인으로서 시인은 그녀에게 아시아의 전설을 말하고 있다(그녀는 물론 서양인일 것이다). 다른 한 여인은 향연의 밤에 '은행 지배인이 동반한 꽃 파는 소녀'이다. 시인은 그녀의 불안의 가능성 혹은 그녀의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어져온 불운을 읽어내는데 그것은 "그는 일찌기 자신의 몸 값보다 꽃 값이 비쌌다는 것을 안다"는 것으로서 표현된다. 즉 시인은 광복을 맞이한 현재의 시기에도 '육전대(일본해병대)'의 연주가 들리는 유사-식민지 상황을 그려내고 있다. 식민지 이후의 현재에도 부조리한 상황은 이어지고 있으며 동포들의 불안과 자유는 불운과 고통의 연속으로서 지속되는 것이다. 이 장면을 복합적으로 비추어내는 시인의 '거울'에는 그것에 연민과 불안을 느끼는 시인 자신의 내면이 겹쳐지는데, 그것은, "백주(白晝)의 유혈을 밟으며 찬 해풍이 나의 얼굴을 적시"는 '분열된 의식'으로 형상화된다.

이 같은 장면은 시인의 작품에서 비극적 요체를 구성하고 있다. 그 사례를 들어보면, "하루하루가 나에게 있어서는 悲慘한 祝祭"(「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 "不安한 「산테리아」와 함께" 하는 "狂亂의 춤"(「舞蹈會」), "달 속에 暗澹한 검은 江"(「검은江」), "白晝의 流血을 밟"는 "나의 얼굴을 적시"는 "찬 海風"(「植民港의 밤」), "鼓膜을 깨뜨릴 듯이/ 달려오는 電波"(「밤의 노래」), "술취한 水夫의 팔목에끼여 波도처럼 밀려드는 불안한 最後의 會話"(「最後의 會話」), "不幸한 神 당신이 부르시는 暴風"(「不幸한 神」), "限없이 우리들을 괴롭히는 問題되는 것"(「問題되는 것」), "눈을 뜨고도 볼 수 없는 狀態는 어찌할 수가 없었다"(「눈을 뜨고도」), "남아있는 것과 잃어버린것과의 比例를 모른다"(「太平洋에서」), "不安한 언덕에서" "陰影처럼 쓰러져" 가는 것(「一九五〇年の輓歌」), "희미한 달을 바라 울며 울며 일곱 개의 層階를 오르는 그 아이의 向方"(「일곱개의 層階」), "列을 지어 죽엄의 비탈을 지나"는 "어리석은 永遠한 殉教者"(「回想的 溪谷」), "녹솔은가슴과뇌수에" 내리는 "차디찬비"

(『새벽한시의詩』), “絶望된 사람의 피”(『다리 위의 사람』), “내 얼굴과 금간 육체에 젖어버린 “孤立과 콤플렉스의香氣”(『十五日間』) 등을 들 수 있다.

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회와 세계를 객관적으로 응시하며 고통받는 이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노력을 보여준다. 그것은 고통받는 이들의 불안과 가능성, 과거와 미래에 관한 상념으로부터 시작된다. 그가 생각하는, ‘시인으로서의 임무’는 그 자신을 비롯한 이웃들의 ‘불안’과 ‘고통’이 투영된 ‘분열된 정신’을 그리는 일이며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의 ‘가능성’과 ‘자유’와 ‘미래’를 가늠해보는 일이다. 동시에, 그것은 ‘인간에’ 혹은 ‘인류에’라는 신성한 지향 하에서 시인의 개별적 ‘불안’을 극복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박인환은 그가 속한 당대에서 ‘시’는 사회를 견인하는 정신적 지형도라고 믿었다. 즉 그는 “한국의 문화적 체계에 있어 가장 진전되고 있는 것은 시의 상태”로서 판단하였다. 그리고 그는 “시인에게 있어 조리 있게 처방되어야 할 것은 “현실의 비판, 사회적 관심, 인간적인 내성”이라고 주장하였다.<sup>34)</sup> 즉 시인은 “황폐와 광신과 절망과 불신의 현실이 가로놓인 오늘의 세계”속에서 “그(시인)의 사회적인 책임은 시를 쓰는 데 있고 인간에 성실하려면 이 세계 풍조를 그대로 묘사하여야만 한다”고 진술하고 있다.<sup>35)</sup>

사람들의 불안과 고통을 비추어내는 ‘십자로에 선 거울’이란, 곧 ‘시인의 내면’이기에 시인의 불안과 연민과 인간애가 투영된 그것은 ‘현기증’나는 ‘불안’ 혹은 ‘분열된 정신’의 형상일 수밖에 없다. 그의 ‘분열된 정신’은 오든의 『불안의 연대』<sup>36)</sup>가 형상화하고 이후 그가 나아간 지점 혹

34) 『현대시의 변모』 부분.

35) 『현대시의 불행한 단면』 부분.

36) “오든의 『불안의 연대』의 주인공들에게는 그 어떠한 심리적 치유도 종교적 비약도 허용되고 있지 않다. 그것은 바로 그들(불안에 처한 인간들)은 리얼리티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들은 불행과 절망에 시달리면서 불행과 절망과 공포의 실체에 직면하거나 직면하고자 하는 의지와 열의가 없다는 것이다”, 송인갑, 『오든의 『불안의 연대』에 나타난 불안의 개념』, 『인문연구』(인하대

은 키에르케고르가 '불안의식'을 극복하는 방식과는 구별된다. 오든은 기독교가 사회에 대한 도덕적 책임과 사회참여로서의 예술을 주장하는 것으로 나아갔으며 키에르케고르는 '가능성'에 의한 '자유'와 '불안'의 관계를 인간의 근원적 요소로 파악하고 절대적인 신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갔다. 한편, 박인환은 '불안'을 직면하는 '선택'과 '자유'로서 '시인으로서의 임무'와 '인간주의적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 그것은 초월적, 절대적 신의 영역이 아니라 인간의 '가능성'과 '자유' 그리고 '예술'과 '시'에 대한 믿음에 근거해 있다. 그는 진정한 '시'는 개인과 민족이 나아갈 방향을 암시하는 정신적 지형도라고 믿었다.<sup>37)</sup>

나아가 그는 “끝끝내 그 절박한 것을 뛰어넘지 못하고 죽고 마는” “절박한 인간”의 모습을 담아내고자 하였다(“그들은 그곳에서 또다시 떠나기 위하여 갖은 최선을 노력했으나, 끝끝내 그 절박한 것을 뛰어넘지 못하고 죽고 마는 것이다. 이런 인물의 등장은 내가 지금까지 기다리고 바라던 영화의 세계인 것이다,” 『절박한 인간의 매력』 부분). 뿐만 아니라, 그의 시야는 국내를 훌쩍 넘어서 우리와 같은 피식민 국가들 곧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의 상황과 현실에 관한 것들에까지 이르고 있다(“亞細亞 모든緯度/ 잠든 사람이어/ 귀를 기우려라// 눈을뜨면/ 南方의 향기가/ 가난한 가슴팍으로 숨여든다,” 『南風』 부분, “피흘린 자바

학 인문과학연구소) 31집, 2000.12, 104쪽.

37) 특기할 것은 박인환은 자신의 시편에서 늘, '바라보는 자'의 입장에서 서 있다는 사실이다. 그는 늘, 바라보는 대상들의 불안과 고통에 공감하면서도 그들과는 거리를 두는 혜택받은 존재 혹은 그의 표현에 의하면 '정신의 황제'로서 나타난다(“그러한 不安의 格투 …… 情神의皇帝! 내 秘密을누가 압니까?”, 『最後의 會話』 부분). '시인으로서의 역할'을 사회와 세계를 '바라보고' 견인하는 존재로서 한없이 끌어올리는 상상은, 그러한 '시'를 쓰는 시인 그 자신의 한없이 확장되는 '자아'를 동반하고 있다. 즉 “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타자를 일방적으로 바라보기만 하는 위치나 상태를 선호하는 것은 신(神)의 위치에 서려는 것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변광배, 『장폴 사르트르 시선과 타자』, 살림, 2004, 40쪽). 이것은 그가 미국여행을 기점으로 자신의 시론과 창작 상의 큰 변화를 맞게 되는 사실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섬(島)에는/ 붉은 간나꽃이 피려니/ 죽엄의보람은 南海의太陽처럼/ 朝鮮  
 에사는 우리에게도 빛이려니,” 『인도네시아 人民에게 주는 詩』부분). 특  
 히 『仁川港』에서, 그는 우리와 같은 식민상황에 처한 국가, 민족이 겪는  
 ‘불안’과 ‘고통’과 ‘가능성’을 공감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星條旗가 퍼  
 덕이는 宿舎와 駐屯所의 네온·싸인은 붉고 잔그의 불빛은 푸르며 마치  
 유니온·잭크가 날리는 植民地 香港의 夜景을 닮아간다 朝鮮의海港仁川  
 의 埠頭가 中日戰爭때 日本이 支配했던 上海의밤을 소리없이 닮아간다,”  
 『仁川港』 부분<sup>38)</sup>).

박인환의 시적 사유는 ‘불안’ 속에서 미래를 향한 가능성과 위험을 동  
 시에 인지하고, 그것을 힘겹게 헤쳐나가는 특성을 보여준다. 이것은 키  
 에르케고르의 존재론적 성찰과 유사한 측면을 갖는다. 그러나 키에르케  
 고르의 방식이 초월적 ‘신’을 향한 신념과 관련된 반면에 박인환은 ‘인간  
 (시인)’과 ‘예술(시)’을 향한 신념과 관련되어 있다. ‘불안’과 관련된 시인  
 의 시론의 핵심은 ‘분열된 정신’로서 나타낼 수 있다. ‘분열된 정신’은 ‘시  
 인으로서의 역할’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십자로에 선 거울’의 매개로서  
 구체화된다. ‘십자로에 선 거울’처럼, 시인은 여기, 저기 그리고 그 너머  
 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과 ‘불안’을 응시하고 공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적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일이기때, 그는 그것이 ‘본질적  
 시에 대한 정조와 신념’을 지키는 일이라고 믿었다(그는 시집 후기에서  
 10여년의 창작활동 동안 이것을 지켜왔다고 고백한다). 그럼에도 시인의  
 역할은 시대적 ‘불안’에 잠재된 우리의 ‘가능성’과 ‘자유’와 ‘미래’를 예지  
 적으로 조명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것이 선택받은 ‘선지자적(先知者的)  
 시인으로서의 임무로서 여겼으며 그와 같은 선택받은 자의 역할이 그  
 자신에게 주어졌다고 믿었다.

38) 이 시에서 시인은 인천항에서 “날이 갈수록 銀酒와 阿片과 호풍이 密船에 실려  
 오고 太平洋을 건너 貿易風을탄 七面鳥가 仁川港으로 羅針을 돌리”는 모습을  
 지켜보는데, 이것은, 1950년대 인천항에서 성조기가 펄럭이는 모습이 중일전쟁  
 때 일본이 지배했던 상해의 모습을 닮고 있음을 유추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박인환은 그를 초점화한 시기에 따라서 심지어 동일한 시기에 관해서도 상반된 평가를 받아온 시인이다. 그것은 그의 연구사에서 그의 후기 시에서의 '불안의식'과 '폐시미즘' 및 '감상주의'에 관한 부분이 부각된 원인도 있다. 그러나 박인환은 당대 누구보다도 시인으로서의 끊임없는 자기혁신과 소명의식을 광범위한 스펙트럼으로써 보여주는 시인이다. 박인환의 시에서 단연 주조를 이루는 정서는 '불안의식'이다. 그의 불안의식은 그가 어떠한 지향과 활동을 갖든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것이다. 이 글은 박인환의 이같은 불안의식에 관해서 특히 그의 초기시에서 두드러지는 '선지자적 시인'의 형상과 관련하여 논의하였다. 6.25전쟁 전후 그의 불안의식은 1,2차 세계대전을 겪은 서구 실존주의 문인들의 그것과 상통된 맥락을 갖는 것이었다. 박인환은 당대 서구 전위시인들의 문명과 전쟁에 관한 동류의식을 지니고 있었다. 그가 당대의 '불안'속에서도 미지의 '자유'와 '가능성' 그리고 '위험'을 읽어내는 방식은 키에르케고르의 '불안'에 관한 고찰과 유사한 특성을 지닌다. 그러나 키에르케고르가 불안의 이중적 속성으로부터 절대적 '신'을 향한 귀의로 나아가는 정신적 단계들을 고민하였다면, 박인환은 당대사회의 '불안'이 지닌 이중적 속성으로부터 '인간주의'에 바탕을 둔 인간의 '자유' 혹은 미래의 '가능성'을 읽어내고자 하였다. 그러한 시론적 지향의 주요한 형상은 '선지자적 시인'으로서 나타낼 수 있다. 그것은 당대 사회의 구석구석을 '인간주의'와 '인류애'로서 조명해내는 지난한 작업이었다. 주목할 것은 '선지자적 시인'으로서의 소명의식은 박인환 그 자신을 줄곧 따라다닌 그의 태생적인 개인적 '불안'을 극복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었다.

#### 4. 결론

당대 사조 및 시대상황과 관련된 박인환의 '불안의식'은 복합적 특성

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의 시론적 지향과도 결합되어 있다. 이 글은 박인환의 ‘불안’의 특성을 그의 시론적 지향 즉 ‘본질적인 시에 대한 정조와 신념’과의 관련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가 자신의 ‘불안’을 응시하고 극복해내려는 과정은 간접적 영향관계에 놓인 키에르케고르의 ‘불안’의 특성과 견주어 봄으로써 유효한 의미를 얻을 수 있다. 박인환의 시적 사유는 ‘불안’ 속에서 미래를 향한 ‘가능성’과 ‘위험’을 동시에 인지하고, 그것을 힘겹게 헤쳐나가는 특성을 보여준다. 이것은 키에르케고르의 존재론적 성찰과 유사한 측면을 갖는다. 그러나 그같은 ‘불안’을 극복하려는 방식에 있어서 차별성을 보여준다. 즉 키에르케고르는 ‘가능성’에 의한 ‘자유’와 ‘불안’의 관계를 인간의 근원적 요소로 파악하고 절대적인 신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갔다. 박인환의 경우는 ‘불안’을 직면하는 ‘선택’과 ‘자유’로서 ‘시인으로서의 임무’와 ‘인간주의적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 그것은 초월적, 절대적 신의 영역이 아니라 인간의 ‘가능성’과 ‘자유’ 그리고 ‘예술’과 ‘시’에 대한 믿음에 근거해 있다. 즉 박인환은 시인의 역할이 전후(戰後)의 공동체적 ‘불안’ 속에 잠재된 우리의 ‘가능성’과 ‘자유’와 ‘미래’를 예지적으로 조명하는 것으로 믿었다. 그는 이것이 선택받은 ‘선지자적(先知者的)’ 시인으로서의 임무로서 여겼으며 그같은 역할이 자기 자신에게 주어졌다고 믿었다. 주목할 것은, ‘인간주의’를 추구한 시인의 식이, 그를 평생 따라다닌 그의 지독한 불안을 극복해내는 내적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 참고문헌

- 문승목 편, 『박인환 전집』, 예옥, 2006.
- 맹문재 편, 『박인환 전집』, 실천문학, 2008.
- 엄동섭, 염철 편, 『박인환 문학전집』, 소명출판, 2015.
- 강계숙, 「'불안'의 정동, 진리, 시대성: 박인환 시의 새로운 이해」, 『현대문학의 연구』 51, 2013.10.
- 곽명숙, 「1950년대 모더니즘의 묵시록적 우울-박인환의 시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32,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 김승희, 「전후 시의 예술 특성: 애도의 언어와 우울증의 언어-박인환·고은의 초기시를 중심으로」, 『한국시학연구』 23, 2012.7, 125-149쪽.
- 김용희, 「전후 선택멘털리즘의 전위와 미적 모더니티 -박인환의 경우」, 『우리어문연구』 35, 우리어문학회, 2009.
- 김은영, 『1950년대 모더니즘 시 연구』, 창원대 박사논문, 2000.
- 김종윤, 「전쟁체험과 실존적 불안의식-박인환론」, 『현대문학의 연구』 7, 1996.
- 김주성, 「오든 초기시의 인간중심적 고찰」, 『영미문화』(한국영미문화학회) 6권 1호, 2006. 4, 35쪽.
- 김재홍, 「모더니즘의 공과」, 이동하 편, 『한국현대시인연구12』, 문학세계사, 1993.
- 라기주, 「박인환 시에 나타난 불안의식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46, 2015.
- 마르틴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 까치, 1998, 254-257쪽.
- 맹문재, 「박인환의 전기 시작품에 나타난 동아시아 인식 고찰」,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38,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8.

- 문혜원, 「전후 모더니즘 문학의 성격 규명을 위한 시론」, 『관악어문연구』 16,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1.
- 박몽구, 「박인환의 도시시와 1950년대 모더니즘」, 『한중인문학연구』 22, 2007.
- 박연희, 「박인환의 미국 서부 기행과 아메리카니즘」, 『한국어문학연구』 59,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12.8, 137-182쪽.
- 박현수, 「전후 비극적 전망의 시적 성취-박인환론」, 『국제어문』 37, 국제어문학회, 2006.
- 방민호, 「박인환 산문에 나타난 미국」, 『한국현대문학연구』 19, 한국현대문학회, 2006, 413-448쪽.
- 변광배, 『장폴 사르트르 시선과 타자』, 살림, 2004, 40쪽.
- 사르트르, 『존재와 무』 정소성 역, 동서문화사, 2009, 84-85쪽, 91쪽.
- 샤를 르 블랑, 이창실 역, 『키에르케고르』, 동문선, 2004, 52-56쪽, 92-97쪽, 100-101쪽, 155쪽.
- 송인갑, 「오든의 『불안의 연대』에 나타난 불안의 개념」, 『인문연구』(인하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31집, 2000.12, 104쪽.
- 쇠렌 키르케고르, 임규정 역, 『불안의 개념』, 한길사, 1999, 159-182쪽.
- 쇠렌 키르케고르, 임규정 역, 『죽음에 이르는 병』, 한길사, 55-70쪽.
- 알랭 드 보통, 『불안』, 은행나무, 2012.
- 엄동섭, 「해방기 박인환의 문학적 변모 양상」, 『어문논집』 36, 중앙어문학회, 2007.
- 오세영, 「후반기 동인의 시사적 위치」, 『박인환』, 이동하 편, 『한국현대시인연구12』, 문학세계사, 1993.
- 오문석, 「박인환의 시정신과 산문정신」, 『문학사상』 35.3, 문학사상사, 2006.3.
- 이기성, 「제국의 시선을 횡단하는 시 쓰기: 박인환 시의 탈식민주의」, 『현대문학의 연구』 34, 2008.
- 이서규,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와 의지의 형이상학에 대한 고찰」, 『동

- 서철학연구』 48, 한국동서철학회, 2008.
- 이승훈, 『1950년대 한국 모더니즘 시의 전개』, 『한국모더니즘 시사』, 문예출판, 2000.
- 이은주, 『1950년대 문학비평의 세계주의와 미국적 가치지향의 상관성』, 『상허학보』 18, 2006.
- 장석원, 『아메리카 여행 후의 회념』, 『박인환 깊이 읽기』, 서정시학, 2006.
- 조영복, 『근대문학의 ‘도서관 환상’과 ‘책’의 승배 -박인환의 『서적과 풍경』을 중심으로』, 『한국시학연구』 23, 한국시학회, 2008.
- 정영진, 『박인환 시의 탈식민주의 연구』, 『상허학보』 15, 상허학회, 2005.8, 387-417쪽.
- 최리영, 『박인환 시에 나타난 ‘청각적 이미지’ 연구-‘소리풍경soundscape’를 중심으로』, 『비교문학』 64, 한국비교문학회, 2014.
- \_\_\_\_\_, 『박인환 시에서 ‘미국여행’과 ‘기묘한 의식’ 연구-‘자의식’의 문제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연구』 45, 2015.4.
- 프로이트, 김석희 역, 『문명 속의 불만』, 열린책들, 2004.
- \_\_\_\_\_, 『정신병리학의 문제들』, 열린책들, 2010, 292-301쪽.
- \_\_\_\_\_, 『무의식에 관하여』, 열린책들, 1997, 248-249쪽.
- 한명희, 『박인환 시 『아메리카 시초』에 대하여』, 『어문학』 85, 한국어문학회, 2004.
- 허현숙, 『오든』, 건국대출판부, 1995, 54쪽.
- New Oxford American Dictionary, Third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p.71.
- Stefan G. Hofmann and Patricia M. DiBartolo, “Introduction: Toward an Understanding of Social Anxiety Disorder” Social Anxiety (2010). pp.19-26.
- Teigen, Karl Halvor, “Yerkes-Dodson: A Law for all Seasons”. Theory Psychology (November 1994), vol.4(4): pp.525-47.

<Abstract>

A study on the correlation of Park In-hwan's  
'anxiety' and his 'poetics'  
- Focused on Kierkegaard's anxiety

Choi, Ra-Young

This paper aims to study the correlation of Park In-hwan's 'anxiety' and his 'poetics' or his 'belief in intrinsic poetry' by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anxiety' in his poetry. A valid meaning can be extracted by comparing Park's 'anxiety' with Kierkegaard's 'anxiety' which has an indirect relation with Park's that characteristic. Park's poetic thought shows that he recognizes possibility and danger simultaneously in 'anxiety' and struggles to overcome danger. This has a similarity to Kierkegaard's ontological introspection in some aspects. However, Kierkegaard's way is associated with the belief in transcendental faith in 'deity' whereas Park's way is associated with the belief in 'human(poet)' and 'art(poetry)'.

The gist of Park's poetics related with anxiety can be shown as a 'split mind'. The 'split mind' meaning a 'role as a poet' is materialized by the 'mirror standing at a crossroads'. His thought is that poets should sympathize everybody's 'pain' and 'anxiety' staring at those like the 'mirror standing at a crossroads'. It is a way to endure 'humane agony', so he believes that the way is a way of cherishing the 'fidelity and faith towards intrinsic poetry'(He confessed that he

has kept this belief for more than 10 years writing at his anthology's epilogue). Nevertheless, his duty as a poet is examining prophetically people's 'possibility', 'freedom' and 'future', which are laid dormant in epochal 'anxiety'. He accepts it as a duty of a chosen, prophetic poet and also believes that the role of chosen poet is given to himself. What is especially noteworthy is that the poet mind pursuing 'humanism' is the very motive for him to overcome intense anxiety which follows him like a shadow.

Key Words : anxiety, poetics, Kierkegaard, freedom, possibility, split mind, mirror standing at a crossroads, prophetic poet, humanism.

■ 논문접수 : 2017년 2월 28일  
■ 심사완료 : 2017년 4월 6일  
■ 게재 확정 : 2017년 4월 13일